

(첨부)

##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3~2.9]

### 1 경제일반

####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제 영향①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관련 日 정부 입장

○ (주요 파급경로) 내각부 관계자는 1.28 월례 경제설명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로 △중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 감소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야외활동 기피 등으로 인한)국내 민간소비의 감소의 3가지를 지적함.

- 일본 국내 인바운드 소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점하는 높은 비중,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한 각국 경제 간의 긴밀성 증대 등을 감안해 본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인 관광객 수 등 관련 통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 (아베 총리, 총력대응 지시) 아베 총리는 2.1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 등에 따른 경제 영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총리는 ‘이미 관광을 포함해, 지역경제를 비롯한 일본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며, 전 각료가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지시함.

※ 1.29 국회답변 시점에서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2.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 (中 관광객 감소 등에 지역경제 타격)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특수를 기대했던 지방 관광업은 예약 취소가 속출하며 급감한 관광객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방 기업 역시 중국 공장의 가동이 연기되고 회의 및 출장이 보류되는 등으로 해외전략에 영향을 받고 있음.

- 방일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30%(‘19년 기준, 959만 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중국인 관광객의존도는 다르나 비교적 높은 편인 규슈의 경우 약 30%를 차지함.

- 지역 경제계에서는 2003년 SARS 발생 시처럼 사태의 수습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장기화될 경우, 지역 관광 및 소매업이 입게 될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음.

○ (공장 등 휴업 연장으로 서플라이 체인 영향 파급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 전체 영토의 약 80%에 해당하는 25개 성·직할시·자치구가 춘절 연휴가 끝난 뒤에도 휴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을 취함에 따라 중국에 거점을 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이 파급될 우려도 불거짐.

- 英 리서치회사 Informa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폰의 약 65%, PC의 약 45%가 중국에서 생산되며, 휴업의 장기화 등으로 생산이 정체될 경우 3월 발매 예정인 저가형 아이폰 등을 포함해 상품 발매 시기 및 재고준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으로 ‘18년 일본의 對中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약 3,470억 엔을 기록하며 SARS가 확산했던 ‘02~‘03년의 약 10배 수준까지 증가한 만큼, 자동차 산업의 영향도 우려됨.

-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각국경제로의 연쇄적인 파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 조사기관에서는 SARS 확산 때에 비해 피해의 규모는 클지라도 기간은 짧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임.

- **(중시 하락 및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고조)** 美 다우공업평균지수는 1.31 작년 8월 이래 최대 일일 낙폭인 603달러를 기록했으며, 춘절 연휴가 끝나고 거래를 재개한 상해증권거래소의 증시도 대폭 하락해, 금융시장은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고 있음.

- 시장관계자들은 닛케이지수의 하락세가 계속돼 2월 하순에는 2만 2,000엔 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험회피 심리 고조에 따라 엔 매수 움직임이 계속되며 엔고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엔·달러 환율이 5~6월에는 10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됨.
-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2.3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시장에 1조 2천억 위안이라는 이례적인 규모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주요국 중앙은행이 ‘20년 금융완화 기조를 이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제 영향②

### 1. 실물경제 영향

- **(도시 봉쇄로 공급망 단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지인 후베이성 우한시(市)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이 발달해있으며 내륙 및 수상 교통의 요충지이나, 금번 사태로 인한 도시 봉쇄의 장기화로 공급망이 단절됨에 따라 중국 국내의 서플라이 체인의 기능부전이 우려됨.
- 현재 우한에는 日 혼다, 美 GM, 佛 PSA 그룹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 및 관련 부품 메이커가 입지해있으며, 中 정부의 하이테크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의 흐름을 타고 반도체 및 우주개발 등의 거점도 잇달아 들어서 있음.

\* ‘중국제조2025’의 10대 중점분야: 차세대정보기술, 공작기계·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엔지니어링·하이테크선박, 첨단철도설비, 에너지절감형·新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용기자재, 新소재, 바이

오의약·고성능의표기제

※후베이성 및 우한시의 GDP 및 2차 산업 규모와 자동차 생산량

	중국 전체	후베이성	우한시
GDP(억 위안)	90조 309	3조 9366(4.4%)	1조 4847(1.6%)
2차 산업	36조 6001	1조 7088(4.7%)	6377(1.7%)
자동차생산량(만대)	2781	241(8.7%)	170(6.1%)

- 우한 주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中 국내의 자동차 공장과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후베이성의 봉쇄가 계속될 경우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필리핀 등 중국 국외에서의 대체 생산을 통해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한편, 中 정부가 중시하는 인프라 분야 및 반도체 산업 등은 정부 협력 하에 가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력 등 일부 중점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통관 절차 지연으로 물류 정체)**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휴가 후에도 휴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중국 국내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물류 정체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65%, PC의 45%, TV의 40%를 담당하는 중국 국내의 통관 절차 지연으로 물류 정체가 장기화 될 경우, 제조업의 생산 및 소매업의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됨.
- 일본계 제조업 회사 중에서는 춘절 연휴 기간 중의 생산 감소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으며, 해운업계에서는 ‘2월은 원래 컨테이너 화물이 적은 시기로 3월까지 사태가 수습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 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 **(中 여행객 감소로 日 백화점 매출 타격)** 일본여행업협회(JATA)의 조사에 따르면 中 정부에 의한 단체 해외여행 금지 조치로 예약 취소가 급증해 3월까지 40만 명을 넘는 중국인 단체여행객의 취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 및 비즈니스 여행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日 국내 대형 백화점 3사가 발표한 1월 매출속보에 따르면, 금년 춘절 기간(1.24~30) 중 면세 매출은 3사 모두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

※충절기간 중 백화점 3사 면세 매출(전년 충절 기간 대비 증감률)

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 ▲10%, 다이마루마쓰자카야 ▲5%, 다카시마야 ▲14.7%

- 내국인 소비 동향에는 현재로서 영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외출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매출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백화점 ‘다카시마야’ 관계자)는 현장 의견도 있음.
- SMBC닛코증권은 중국 정부에 의한 단체여행 금지가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약 2,950억 엔의 인바운드 소비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본의 GDP가 약 0.05%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산함.

※'19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 총액은 1조 7,718억 엔(日 관광청)

## 2. 금융시장 동향

- (닛케이지수 3개월 만에 최저치 마감) 2.3 日 닛케이지수는 전일대비 233엔 하락한 2만 2,971엔으로 약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장을 마감했으며 일시적으로는 400엔을 웃도는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2.3 아시아 각국 주요주가지수 변동률

일본 ▲1.01%, 중국 ▲7.72%, 대만 ▲1.21%, 싱가포르 ▲1.18%, 베트남 ▲0.90%, 호주 ▲1.42%, 홍콩 +0.16%

- (세계증시 시가총액 열흘간 4조 달러 감소) Quick Factset 데이터에 근거한 닛케이신문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증시 시가총액은 88조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1.20일 이후 2.3까지의 열흘간 약 400조 달러(430조 엔) 감소했으며, 2.3에는 중국 시장에서만 5000억 달러가 증발함.
- 춘절 연휴가 끝나고 1주일 만에 거래를 재개한 2.3 中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연휴 전 종가대비 7.7% 하락한 2746.61로 장을 마감하며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함.

※ 현지 정보에 따르면 2.3 주가 하락률은 '위안화 쇼크'로 8.49%를 기록했던 '15.8.24 이래 최대

- 국제금융협회(III)에 따르면 1.21부터 1주간 약 284억 달러에 상당하는 자금이 중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19.4월 미중무역마찰 당시의 자금유출 속도를 상회하는 양상을 보임.

※ 자금유출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2.3 위안화의 對달러 환율이 7.02위안/달러까지 상승하며 '19.12월 이래 최고치 기록

- (美 금리인하 재개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하방위험요인과 정책목표인 2%를 밑도는 물가상승률의 둔화를 배경으로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대두됨.
- 금리선물의 움직임에 기반해 금융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올해 7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실시될 확률은 연초 시점에는 25% 정도였으나, 최근 2.2 시점에는 70%까지 급상승함.
- 미일간의 금리차가 축소된데 비해 과거 추세에서 괴리된 엔저 경향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해 향후 엔고 압력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음.

## 3. 일본내 대응 및 대책 마련 동향

- (日 기업 생산 재개 연기) 日 기업들은 中 지방 정부 등의 요청에 따라 공장의 생산재개를 연기하고 있으며, 우한 소재 약 160개 일본계 기업 중 혼다, 히타치제작소, 다이킨공업 등은 14일 이후까지 재개를 연기할 방침임.
- 중국에 거점을 둔 일본계 기업들로 구성된 「중국일본상회」의 긴급양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4%가 조업 재개시기를 「10~16일」로 예상한 한편, 재개 후 종업원을 ‘통상시처럼 출근’ 시키겠다고 답변한 기업은 37%에 그침.
- 日 미쓰비시UFJ은행 및 미즈호은행 등은 3일부터 일부지역에서 영업을 재개했으나 창구 업무는 일시적으로 단축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日 기업 중국 국외 대체생산 검토) 中 정부 당국 방침에 따라 일러도 2.9까지 휴업기간이 연장되고 향후에도 더욱 연장되며 생산재개 시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日 기업들은 중국 국외에서 대체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제조사 아이신 정밀기계 관계자는 ‘중국이 멈춰 있어도 다른 지역은 움직이고 있다. 현재 대체생산 품목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며 주로 일본 쪽으로 생산을 돌릴 것을 검토 중이라는 계획을 밝힘.
- 도요타 방직 역시 자동차의 시트 커버 등 생산과 관련해 ‘조업을 재개해도 물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현재 일본 및 태국으로 생산을 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SBI증권 엔도 고지(遠藤政治) 기업조사부장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부품은 일본 등에서도 생산가능한 것이 많지만, 생산을 옮길 때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매출 감소를 포함한 경제 영향의 전체상은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는 기대에 걸려 있어 ‘전혀 알 수 없다’고 언급함.
- (日 국내 기업도 감염 확산 방지 노력)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日 국내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텔레워크를 활용한 재택근무 및 혼잡시간을 피한 시차 통근을 장려하거나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
- 인력파견회사 파소나(Pasona) 그룹은 임신부 및 50세 이상의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으며 통근 러쉬 시간대를 피해 아침 이른 시간대나 점심 때 출근하는 ‘오프 피크 통근’ 제도를 신설함.
- 라쿠텐은 1.24부터 중국 출장 및 중국으로부터의 출장객을 맞이하는 업무를 정지했으며, 1월 중순 이후 직원 및 가족이 중국을 방문했을 경우 2주간 재택근무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감염 확산 과정에서 버스 운전자 및 투어 가이드의 감염이 확인된 사실을 감안해, 日 국토교통성은 버스, 택시, 철도, 항공 등 교통기관의 각 사업자에게 승무원의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택시 및 버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

#### 4. 세계경제 신종코로나의 영향 확산에 위기감 고조

- (中 정부 경제 영향 관련 입장 표명) 中 거시경제운영의 사령탑인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의 런웨이량(連進良) 부주임은 2.3 기자회견에서 ‘경제, 특히 소비에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통·운수, 문화·여행, 호텔·요식, 영화·오락 등 업계에 타격이 크다고 언급함.

- 그러나 ‘03년 SARS 발생시와 비교했을 때, ‘중국경제의 실력, 물질적 기반, 사건 대응능력은 명백히 개선’됐으므로 타격은 당시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함.

※ SARS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03년 봄에 집중돼, 4~6월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9.1% 감소함.

- 中 정부계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CASS)의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년 1~3월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0%p 하락한 ‘5.0%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나, 그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함.

- (세계경제 성장률 하방압력 우려) 민간 조사기관의 분석에서는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이 SARS 발생 당시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로, 英 연구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생산활동 정지로 인한 中 경제 정체로 ‘20년 세계 GDP 성장률이 0.2%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03년 당시에 비해 중국 경제가 세계 GDP에 점하는 비중(구매력평가 기준)은 8%에 20%로 상승했으며, 무역 비중 및 원유 수요, 여행지출도 빠르게 확대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임.

- 세계 채무 총액에 중국이 점하는 비중 역시 3%에서 20%로 상승해, 차입 의존도가 높은 中 기업들이 경기후퇴로 타격을 입을 경우의 파급효과 역시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금융정보회사 Refinitiv의 ‘19.12월 시점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업 등 비금융 부문 中 기업이 발행한 사채의 총 상환액은 ‘20년 4,200억 달러, ‘21년 6,300억 달러, ‘22년 5,700억 달러에 달해 3년간 합계액이 1조 6천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임.

####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제 영향③

## 1. 日 기업 영향 및 대응 현황

- **(자동차 업계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부상)** 중국내 공장의 생산정지가 길어지며 현대자동차가 부품조달 지연 및 재고 소진으로 2.4 이후 국내 소재 7개 공장의 가동을 순차적으로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자동차 업계의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가 부상함.
  - 약 3,470억 엔( '18년 기준)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日 자동차업체도 부품조달 지연이 장기화돼 재고가 소진될 경우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日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의 경우 평균 약 1개월치의 재고를 보관하며 수입부품의 경우 더 여유있게 마련해두는 경향이 있어, '기업들이 춘절연휴 전 2-3주간 많이 만들어 두었기 국내생산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중국내수 동향도 감안할 때 2개월 정도 후' (日 국내 증권 애널리스트)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1주일치의 재고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중국내 휴업이 길어지면 일본 국내 생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도 들려오는 등, 일본내 재고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항공업계 中 노선 감편·운휴)** 일본항공(JAL) 및 전일본공수(ANA)는 중국행 비행기편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국을 방문한 파일럿 및 승무원이 다른 나라로의 입국을 제한당해 인력 배치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북경 및 상해 등 중국 본토로의 직행편을 3월 말까지 대폭 감편·운휴하겠다는 방침을 2.4 발표함.
  - JAL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항공관계자를 포함해 중국 체재력이 있는 이의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행 비행기편에 탑승했던 승무원 등의 인력 배치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2.17~3.28까지 하네다·나리타·추부·간사이 등 4개 공항에서 북경·상해·대련 등 中 5개 도시를 잇는 주간(週間) 왕복편 98편 중 55편을 운휴할 방침임.
  - ANA도 예약취소가 급증하며 2월 한 달간 예약이 전년보다 60% 감소함

에 따라, 하네다·나리타·간사이 공항에서 中 10개 도시의 11개 공항을 잇는 주간(週間) 왕복편 165편 중 14편을 3월말까지 운휴할 방침임.

- 이외에도 저가항공사 제트스타가 나리타~상해 노선을 3.28까지 운휴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
- **(각종 업계 실적 영향)** 신종 폐렴의 확산으로 자동차·전기 등 중국에 거점을 둔 제조업을 비롯해 소매업 등에 영향이 파급되며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 소니의 도토키 히로키(十時裕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4 도쿄 도내에서 열린 결산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종 폐렴 확산의 영향과 관련해 '당사(當社)로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는 입장을 밝히며, 스마트폰용 영상 센서의 공급 및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의 판매에 영향이 생길 경우 2.3 상향조정한 바 있는 2020년 3월기(2019.4월~2020.3월) 실적예상을 하향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
  - 화장품 기업 가오(花王)는 신종 폐렴 확산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화장품 소비 등이 감소해, 2020년 12월기(2020.1월~2020.12월)에 최대 200억 엔의 수익 감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신종폐렴 관련 기업 대응 및 실적 영향

닛산, 도요타, 혼다	중국공장 생산재개 연기
파나소닉	대체생산 준비
샤프	영향이 길어질 경우 대체생산 검토
가오	'20년.12월기 최대 200억 엔 수익 감소 요인으로 예상
전일본공수(ANA)	나리타-우한선 운휴 연장
미쓰이물산	중국 출장 자숙, 현지자원 재택 근무
도쿄부동산	관광객 감소로 인한 호텔 매출 저조에 대응
인바야시 제약	인바운드 소비 감소 영향에도 마스크 매출 급증

## 2. 금융시장 동향

- **(日 금융시장 동향)** 中 정부의 대규모 금융완화 방침 발표에 2.3 급락했던 상해종합주가지수가 2.4 전일 대비 1.34% 상승한 2783.29로 장을 마감하며 반등하였으며 닛케이지수도 역시 2.4 전일 대비 112.65엔 상승한 2만 3,085엔으로 마감함.



- 日 재무성이 2.4 실시한 국채 10년물 입찰은 전일 신규발행 국채 10년물 금리의 하락세를 감안할 때 매수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견조한 매수세를 보여, 신종폐렴의 확산으로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우려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는 견재한 것으로 분석됨.

○ (추가 금융완화 논의 시기상조)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2.4 중의원예산 위원회에서 신종폐렴의 확산에 관해 ‘전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며 만전의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으며 ‘필요할 경우 주저없이 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할 것’이지만 ‘현 시점에 추가완화 실시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해 먼저 경제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원유 선물 가격 급락)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가 전망되며 2.3 뉴욕상업 거래소(NYMEX)의 원유 선물 가격(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은 일시적으로 배럴당 50달러 이하까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다 50.11달러로 장을 마감해 1년 1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함.

- 美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일일 원유 소비량의 20%, 세계 수요의 3%에 상당하는 300만 배럴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 그룹(중국석유화공)이 당사 원유 정제 능력의 12%에 상당하는 일일 60만 배럴의 정제를 줄였다고 보도함.

- 노무라증권 오코시 다쓰후미(大越龍文)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석유 수요는 가솔린 및 경유, 항공기연료 등 수송용이 60%를 점함. 물류 및 교통망이 멈춤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함.

-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OPEC 산유국들은 이달 내로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감산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나, ‘가령 일일 300만 배럴 규모의 수요 감소가 계속될 경우, 감산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라쿠텐증권 요시다 사토루(吉田哲) 코모디티 애널리스트)이라는 견해도 있음.

- 비철금속의 최대 소비국이기도 한 중국경제의 정체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3개월 선물가는 2.3까지 14영업일 연속 하락하였고, 알루미늄

미늄은 2.3 3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였으며, 니켈·아연 등도 전반적인 하락기조를 보이는 등 비철금속도 줄지어 하락세를 기록 중임.

※ 세계 비철금속 소비량의 中 비중: 구리 52%, 알루미늄 56%, 니켈 49%

#### 4. 제17회 ALPS 소위원회 개최 결과

□ 1.31(금) 개최된 제17회 ‘다핵종제거설비(ALPS)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오염수의 ‘해양방출’ 및 ‘수증기방출’의 2가지 안을 제언한 사무국안을 대략 승인, 약 3년에 걸친 논의를 종료한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사무국안 주요 내용

###### 가. ‘해양방출’의 기술적 우위성 명기

○ 국내외 실시 전례가 있는 ‘해양방출’ 및 ‘수증기방출’이 ‘현실적 선택지’라면서도, 설비운용 및 방사성물질 감시가 용이한 점을 들어 ‘해양방출이 수증기방출에 비해 확실히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함.

- 탱크를 증설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은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택지에서 제외

○ 대다수 언론은 사회적 영향을 비롯한 종합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처분방안을 좁히기 원하는 사무국과 처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위원들 간의 이견 대립 결과, 교육지책으로 국내외 실시 전례가 있는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의 2개 안으로 추리는 한편, 해양방출의 기술적 우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

###### ※ 사무국안 골자

- 해양방출 및 수증기방출이 현실적 선택지
- 전례 등을 감안, 해양방출이 확실히 실시 가능
-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증기방출이 大
- 처분 시 제3자에 의한 방사성물질 측정 및 공개 필요

[ 처분방법 주요 비교 ]

	해양방출	수증기방출
전례	국내의 원자력시설은 트리튬이 포함된 물을 희석해 방출	사고 원자로에서 실제로 실시한 전례가 있으며, 통상 원자로에서도 환기시 방출
방사선 영향	자연방사선의 1,000분의 1 이하	자연방사선의 1,000분의 1 이하
필요 설비	대기방출에 비해 간단	-
모니터링	감시태세 구축 검토가 비교적 용이하며 방출 후 예상 밖 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움	사전 예측이 어렵고 결과 차이가 해양방출보다 큼

## 나. 철저한 소문피해 대책 주문

- 오염수 처분은 방법을 불문하고 소문피해가 불가피한 바, △ 후쿠시마산 쌀 전포대 검사 등 검사태세를 구축하고, △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해 대책강화를 실시하는 한편, △ 처분 시 제3자에 의한 트리튬 측정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 향상을 촉구함.
- 단, 대책마련의 주체가 명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 피해에 대한 상세분석도 누락되었다는 평가

## 2. 관계자 주요 반응

- (처분방안 축소 관련) 세키야 나오야 도쿄대 준교수(소위원회 위원)는 처분방안이 2가지로 추려진 데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으나, 본인은 소거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총괄하는 한편, ‘해양방출은 후쿠시마의 부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대로 좋은 것인지’ 라는 생각은 든다’고 덧붙임.
- △ 노자키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회장은 ‘후쿠시마 어업의 회복은 해양방출이 없다는 전제 하에 움직인다. 제언이 결정되더라도 (해양방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으며, △ 다치야 어업협동조합부회장은 ‘해양방출은 수용할 수 없다. 젊은 어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오염수 처분은) 상황이 걸린 문제’ 라고 호소
- (소문피해 대책 관련) 구로카와 기요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제3자 기관이 검사를 한다면, 국내외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 국제성과 투명성이 없다면 신뢰받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함.

## 3. 향후 전망

- 2016.11월 시작된 소위원회가 제17회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오염수 처분은 정부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바, 정부는 사무국의 정식 제언(2020.3월 말 예정)을 감안,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현지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분방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결정 시기는 미정임.

※ 야마모토 소위원회 위원장 : ‘처분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단 시간에 처분해야 하므로 정부가 현지 관계자와 협의를 거듭한 뒤 최적의 시기를 결정해주길 바란다’ 고 언급.

## 5. 경산성, 후쿠시마현에 ALPS소위원회 결과 설명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 관련, 경제산업성은 2.5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진척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 회의에서 ‘ALPS 소위원회’가 승인한 ‘해양방출이 (수증기방출보다) 확실하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무국안에 대해 설명했음.
- 정부가 후쿠시마현에서 사무국안에 대해 설명한 것은 최초로, 정부는 현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처분방침을 결정할 계획인 바, 금번 설명도 이의 일환이라는 분석

※ 쓰노야마 시게아키 원자력대책감 : ‘(소위원회에서) 소문피해에 대해 더 논의하여 대책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 끝.

## 6. 후쿠시마산 식품 방사능검사 완화 동향

### □ 쌀 전수검사, 표본조사 전환

-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농도 확인을 위해 59개 시정촌에서 전수검사 방식으로 실시하던 쌀 검사를 2020년도부터 대부분 지역(피난지시 구역인 12개 시정촌 제외)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한다고 2.5 발표함.

- **(결정 배경)** 후쿠시마현은 사고 이후 수확한 2011년산 쌀에서 당시 잠정 규제치인 500Bq/kg을 초과한 세슘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2012년산부터 전수검사를 시작했으나, 2018.3월 ‘5년 연속 기준치 초과 건수 제로(0)’ 달성 시 표본검사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히고 2019년산 쌀 검사(99% 종료)에서 기준치 초과 건수가 없었던 점을 감안, 검사완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평가

※ 후쿠시마현은 2011년 약 8,160만 건의 검사를 실시, 기준치 초과는 101건(△2012년산 71건, △2013년산 28건, △2014년산 2건)이었으나, 2015년 이후 기준치 초과 건수 ‘0’ 유지

- **(향후 전망)** 금번 결정으로 연간 검사 건수는 약 1,000만 건에서 약 1,000건으로 감소하고, 검사비용도 2019년도 대비 80% 감소한 8억 엔이 될 전망

## □ 육우 전수검사, 2020.4월 대폭 완화

- 한편, 후쿠시마현은 2.5 쇠고기 검사에 대해서도 현행의 전수검사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2020.4월부터 각 축산농가는 육우 출하 후 식육처리장에서 연간 적어도 1마리의 쇠고기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됨.

※ 2011.8월 이후 전수검사 개시 이후 정부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쇠고기 미검출.

## 2 대외경제 동향

### 7. 일-EU EPA 발효 후 영향

#### 1. 對EU 수출 증가품목

- **(와인)** EPA 발효 이후 기존에 유럽산 와인에 적용되었던 관세(가격의 15% 또는 125엔/L 중 저렴한 쪽)가 즉시 철폐되면서, 발효 후 2019.2-12월 와인 수입량은 159,708kL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 기존에는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와인이 판매량 우위를 차지했으나 EPA 발효 이후 1,000엔 전후의 저렴한 유럽산 와인의 판매량이 늘어남.

- 2019.2월부터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한 산토리(サントリー)와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유럽산 와인의 판매수량이 전년대비 10% 늘었다고 언급함.

- **(돼지고기, 치즈)** 돼지고기는 전년 동기대비 수입량이 11% 증가했으며, 치즈도 전년 동기대비 수입량이 9% 증가함.

#### 2. 對EU 수출 증가품목

- **(쇠고기, 일본주 등)** EPA 발효 이후 쇠고기, 일본주(酒), 간장, 녹차 등에 부과되었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對EU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쇠고기는 2019.2-12월 對EU 수출량이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함.

※ 아베 총리는 1.20 중의원 본회의 중 시정방침연설에서 2019년 對EU 쇠고기 수출 증가 사실을 강조

- 日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유럽의 일식당은 2019년 기준 1만 2,200점포에 달해 일본주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9.2-12월간 對EU 승용차 수출이 약 16.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혼다가 영국 및 터키 내 자사 공장을 2021년에 폐쇄하겠다고 표명한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늘어난 것이 금번 수출 증가의 이유로 분석되나, EPA 발효 8년째에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향후 對EU 승용차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3. EPA 발효 후 영향

- **(GDP 및 고용 증대 효과)** 日 정부는 EPA 발효로 인해 국내 실질 GDP가 약 1%(약 5조엔) 상승하고 고용도 약 0.5%(약 29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함.
- **(日 국내 생산자 경쟁은 격화)** 日 농림수산성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및 日美무역협정에 이어 日-EU EPA까지 발효됨에 따라 외국산 식품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일본 국내 농림수산업의 생산액은 최대 1,100억 엔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일본 농가 중에는 ‘일본의 농업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대항이 어렵다' 는 의견이 존재함.

- 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타격 완화를 위해 일본 농산물은 품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홋카이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2월 중순 약 320종의 치즈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도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 내 치즈 생산자 간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본산 치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 구상도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등의 EPA 이용률은 저조)** EU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6월 자동차 부품 및 운송기기, 정밀기기 등의 日-EU EPA의 이용률(금액 기준)은 20%에 그쳐 육류 및 어류(70-80%)에 비해 저조했음.

- EP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품이 일본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며, 공업제품의 경우 부품별로 각 거래처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획득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은 업무 대응이 가능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 일본과 싱가포르간 FTA 등 지금까지 일본이 맺은 양자 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전국의 상공회의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공회의소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취해 왔으나, 양자 무역협정 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日-EU EPA는 수출 기업이 스스로 인증서를 작성하는 '자기신고제도' 를 도입함.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중소기업의 EPA 활용도를 높여 수출 확대에 연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日-EU EPA 관련 세미나를 일본 전국에서 140회 이상 개최하고 있음.

○ **(日英 EPA 체결 시급)**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對英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질 것으로 보임.

- 日英간 日-EU EPA 규칙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12월까지로, 日英간 양자협정 미체결 상태에서 동 기한을 경과할 경우 日英간 관세는 EPA 발효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됨.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외무대신은 2.1 영국의 EU 탈퇴에 대해 '새로운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고 담화를 발표했으나, 통상

적으로 EPA협상 타결은 수년 정도가 소요되는 바 '연말까지 EPA 협상을 마무리 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日외무성 간부) 는 의견도 존재함.